

# “시민건강권 확립 강력 대응”

### 익산시, 신천지 교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추가 종교단체 집회 자제 촉구, 전 지역 방역 강화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익산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원광대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특히 익산시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19 익산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8일 입국 의사를 밝힌 유학생 전원을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원광대와 전원 기숙사 입소를 협의한 상태이다.

중국 입국 유학생은 앞으로 2주간 전원 기숙사에 입소해 자가격리하고 1달 동안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철저히 관리될 방침이다.

익산시는 유학생 입국 시 공항까지 차량 3대를 지원해 전원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역물품 등 격리와 관련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고위험군에 전화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에 투입된 직원과 각 읍면동장 29명을 추가하는 등 인력을 보강해 모두 86명이 실시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1일 2회 1대 1 전화상담 방식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지역 종교시설에 대한 전체 집회 자제도 촉구한 상태이다. 익산시는 지난 26일 종교단체 측에 공문을 발송해 이번 주부터 종교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천주교와 원불교, 불교는 계획된 미사와 예배, 전체 집회를 잠정 휴회하기로 했으며 타 종교단체들도 집회를 중단했다.

익산시는 폐쇄된 종교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천지 관련 시설도 추가로 조사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한다. 인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날부터 매주 주기적으로 읍면동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통·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별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가정에서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익산에서는 확진자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철동방역을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시민건강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난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정현을 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장, 윤권하 원광대병원장, 신상훈 익산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익산시-의사회, 코로나19 대응 협력

### 원광대·익산병원, 호흡기환자 분리 진료 시스템 구축

익산시와 의사회가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예비지원과 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의료진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정현을 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장, 윤권하 원광대병원장, 신상훈 익산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의사회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과 전문의료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원광대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형 음압기 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익산병원은 2층 전체를 호흡기질환자 전담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의사회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에 대량으로 확진자 발생 시 인력과 병상 확보 방안, 아동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의료진이 포함된 익산시의사회, 지역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태훈 익산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를 위해 익산시와 협력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28일 제2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함께 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0년도 첫 업무보고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로 간담회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현장과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소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8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우체국 폐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제철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 요금을 긴급 감면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하여 올해 신규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관내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은 8,533전, 대중탕용은 48전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과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을 제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상수도과(859-4371)로 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신천지 전수조사 완료 총력 대응

### 신속대응반 설치... 48명 대상자 특별관리

군산시가 신천지와 관련해 2번의 전수조사 실시한 만큼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신천지 명단 2,065명에 대해 27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결과 대구경북 및 과천방문자가 5명, 유증상자가 33명, 가족 유증상자 10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48명에 대해서 보건소에 별도의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또 48명의 대상자가 금일 내 검체 의뢰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신천지 측의 협조를 부탁했다.

군산시는 두 번의 전수조사에서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두가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속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 추진

### 1500ha 규모 3억원 투입... 4월부터 한달 간 접수

군산시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을 실시하며 농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시 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로부터 오염 없는 맑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농가들의 보릿짚 불법소각

을 방지하고자, 군산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 1,500ha 규모의 보릿짚 환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보리(귀리, 밀)를 재배해 수확 후 잘게 절단 논갈이한 농가로, 농가당 지원 면적은 0.1ha~3ha이며, 지원 단가는 20만원/ha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부터 한달 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릿짚 환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문제의 심각성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보릿짚 환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27천 여ha에서 벗짚을 눈에 유기물로 사용하도록 진행했고 올해 회현RPC집진시설을 백필터방식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RPC의 미세배출 수준을 1% 이내로 관리해 미세먼지 정책을 농업분야에 확장해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코로나19 여파 보건 업무 잠정 중단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진료 및 보건증 등 제증명 업무가 잠정 중단된다.

지난 28일 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코로나19 업무 외 일반진료 및 보건증 등 제증명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후 코로나19관련 문의자가 자주 방문함에 따라 일반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증명 업무등을 상황 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하지만 이미 제작된 보건증은 찾을 수 있어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시민들이 보건소에 내원하며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19 업무로 다른 업무가 소화할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와 관련해 하루 평균 80~90 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으며 일반업무로는 100여명이 방문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가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